

중국 조선족의 언어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흑룡강성 하얼빈시의 조선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장송
(육군사관학교)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 흑룡강성의 한 조선족¹⁾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의 특징을 음성/음운, 어휘, 통사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향방구 성고자진 신성촌²⁾의 조선족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연구 지역의 역사 문화적 현황을 개괄하고 이 조선족 공동체에서의 이중 언어 환경에 대하여 설문을 통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겠으며, 이 공동체의 한국어의 특징을 그 음성/음운, 어휘 및 통사구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연령별 언어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이 공동체에서 한국어가 중국어와 상호작용

【Keywords】 Chenguoz District, Korean Community, bilingualism, attitudes toward Korean and Chinese, assimilation threat from embedding culture

- 1) 이 논문에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중국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을 구성하는 56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중국의 국민을 뜻한다. 북한이 사용하는 ‘조선민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조선족 대신 한인 동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중국 현지에서 韓人 동포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이며, 중국의 漢族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연구자가 2002년 여름 일제 시대의 항일 투쟁의 답사 목적으로 하얼빈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 마을이 경상도에서 이주한 조선족들로 구성되어있음을 인지하였다. 주민 중 한명이 본인의 할아버지가 경남 밀양에서 이주하였다고 하여 밀양지역의 세대별 언어 변화를 미리 조사한 후 이 지역을 재차 방문하여 이 지역의 언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하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자들이 2003년 12월 연구지역을 방문하여 정보제공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획득하였다. 이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흑룡강성 일대의 조선족 공동체의 대부분이 경상도 등 한반도의 삼남지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주 이전 지역의 언어 상황과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설문은 정보제공자의 신상에 관한 질문과 정보제공자의 언어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대별하였다. 언어 사용에 관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국어와 한국어의 운용능력(proficiency),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 쓰는 정도, 한국어의 공식 수학 기간,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 방송/신문의 시청/구독 여부, 성고자진 한국어와 유사한 한국어의 방언, 성고자진의 한국어에 대한 느낌,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60대 1명, 50대 2명, 40대 1명, 20대 1명, 10대 (후반) 1명, 소학교 5학년 학생 2명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轉寫하여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피면담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면담자 현황

황영만, '36년생, 남, 고등중학졸업, 성고자 조선족 소학교 교장(조선어문교사) 역임 후 정년 퇴임, 경상북도 울진에서 이주, 하얼빈시 향방 출생, 이민 3세, 할아버지 때 신성촌 정착.

최성유, '52년생, 남, 중학교 졸업, 농업, 충북 진천에서 이주, 신성촌 출생, 이민 2세, 성고자진 신성촌 거주.

유동근, '52년생, 남, 중학교 졸업, 농업, 전북 진안에서 이주, 하얼빈 출생, 이민 2세, 성고자진 신성촌 거주.

최운봉, '76년생, 남, 대학교졸업(조선족 소, 중, 고중 졸업), 하얼빈시 소재 한국인 기업에 근무, 신성촌 출생, 이민 3세 (최성유의 자).

문금철, '86년생, 남, 중학교졸업(조선족 소, 중학교), 성고자진 소재 호텔 종업원, 연수 출생, 이민 3세.

2. 성고자진 신성촌의 역사, 문화적 현황

하얼빈시 성고자진 신성촌의 조선족 공동체는 1930년경에 최초 이주자가 정착하기 시작한 후, 일본인들이 수로를 하얼빈 동북쪽의 아성에서 하얼빈으로 연결하던 시기인 1938년에 많은 수의 조선족들이 유입되어 중국인들이 등한 시 하는 강 쪽 저지대 일대에 논을 개간하면서 촌락으로서 규모를 갖추어 갔다. 이 지역은 경상도 일대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유입된 인원과 그 후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약 300호 정도 규모의 촌락이며 도로를 경계로 하여 중국인 마을과 연해 있다. 주민들은 자신 또는 자신의 조상이 이주해 온 한국의 지역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한국어가 경상도 방언이라고 믿고 있다. 성고자진에는 조선족 소학교가 있는데, 1930년대 말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한 때 5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교생이 25명(2003년 12월 현재)이다. 조선족 중학교와 고등중학교가 인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선족 소학교, 중학교, 고등중학교에서는 한어(중국어) 수업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수업한다. 참고로 성고자진 조선족 소학교 2003년도 2학기 교과과정을 수록한다.

| 1학년 | | 2학년 | | 4학년 | | 5학년 | | 6학년 | |
|-----|------|-----|------|-----|------|-----|------|-----|------|
| 과목명 | 주당시간 | 과목명 | 주당시간 | 과목명 | 주당시간 | 과목명 | 주당시간 | 과목명 | 주당시간 |
| 수학 | 5 | 수학 | 5 | 수학 | 5 | 수학 | 5 | 수학 | 5 |
| 한어 | 5 | 한어 | 5 | 한어 | 5 | 한어 | 5 | 한어 | 5 |
| 조선어 | 6 | 조선어 | 7 | 조선어 | 7 | 조선어 | 7 | 조선어 | 8 |
| 자연 | 1 | 자연 | 1 | 자연 | 1 | 자연 | 2 | 자연 | 2 |
| 음악 | 4 | 음악 | 3 | 음악 | 3 | 음악 | 2 | | |
| 체육 | 2 | 체육 | 2 | 체육 | 2 | 체육 | 2 | 체육 | 2 |
| 사상 | | 사상 | | 사상 | | 사상 | | 사상 | |
| 품성 | 1 | 품성 | 1 | 품성 | 1 | 품성 | 1 | 품성 | 1 |
| 미술 | 2 | 미술 | 2 | 미술 | 3 | 미술 | 2 | 미술 | 2 |
| 컴퓨터 | 3 | 컴퓨터 | 2 | 컴퓨터 | 3 | 컴퓨터 | 2 | 컴퓨터 | 2 |
| 열독 | 1 | 열독 | 1 | 사회 | 2 | 사회 | 2 | 사회 | 2 |
| 습자 | 2 | 습자 | 1 | | | | | 열독 | 1 |
| 학습 | 3 | 학습 | 3 | 학습 | 3 | 학습 | 3 | 학습 | 3 |
| | | 활동 | 1 | | | 활동 | 1 | 활동 | 1 |
| | | 로동 | 1 | | | 로동 | 1 | 로동 | 1 |
| 계 | 35 | 계 | 35 | 계 | 35 | 계 | 35 | 계 | 35 |

<표 1> 성고자진 조선족 소학교 2003년도 2학기 교과과정³⁾

성고자진의 조선족 사회는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면 소재지 격인 성고자진까지 도보로 15분 정도의 거리이며 성고자진은 행정 및 당 기관, 여관, 상점, 음식점, 농기구 수리소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 구역으로 한족(중국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곳의 조선족 사회는 가정과 공동체의 생활은 한국어로 이루어지며, 일상 용품 구입, 필요한 행정 업무의 수행 등은 중국어로 진행되므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중언어 환경은 조선족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종의 ‘언어 섬’을 형성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조선족 소학교 와 중학교 또는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이민 2세 또는 3세로,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가 매우 강력한 표준어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학교 특히, 교과서의 한국어의 동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교과서는 연변교육출판사에 의하여 제작 배포되는데, 이 교과서에 사용되는 한국어는 북한 표준어인 소위 문화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⁴⁾⁵⁾

-
- 3) 2003년 12월 현재 성고자진 조선족 소학교에는 3학년 학생이 없다. 농촌 지역의 소학교의 학생이 급감하는 것은 한족 학교도 마찬가지여서 학교간 통폐합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의 학교는 인원이 적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소학교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과목별 담임제를 시행하고 있어 학생이 줄더라도 필수 교사는 유지하여야 한다. 과목 중 ‘학습’은 수요일 오후에 각 반 담임 교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학습활동을 일컫는다. 주 5일 수업하며 토요일은 수업이 없다.
 - 4) 안운(1990)에 의하면 중국의 소수민족 어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민족어문에 대한 광범한 조사 연구의 시행: 1956년 국무원 지침에 의거 700명으로 구성된 7개의 민족어문 조사단을 두어 42개 언어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고 문자가 없는 10여개 민족에게 라틴어 자모를 근간으로 하는 14개 문자를 제정 보급하였다. (2) 민족 교육 사업의 강조와 각급 민족학교의 설립 (3) 소수민족의 신문, 출판, 방송과 문화 예술 사업의 진흥 (4) 민족어문 연구 기구와 관리 기구의 설립: 국가 민족 사무위원회에 소수민족 어문 사업 지도 기구를 편성하였으며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 연구소에 언어연구실을 부설하였으며 민족학원과 기타 관련 대학에 언어연구 전문 기관을 설립하였다.
 - 5) 중국에서의 조선어문사업은 조선족 학교의 설립과 이를 통한 조선어문의 교육, 신문, 방송, 출판 등의 문화사업, 조선어문의 규범화 노력, 조선어문 사업의 관리 기구

3.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의 이중언어 환경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는 농업 중심의 폐쇄된 생활환경,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조선족 학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 등에 힘입어,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Bloomfield 등의 최대론자들이 정의한 이중언어 환경을 대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자는 성고자진의 조선족 공동체의 이중언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문을 실시하였는데 33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대략 1:1로 균형을 이루었고,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30대 8명, 40~50대 21명, 60대 이상 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 중 15%인 5명이 이민 4세대이며, 52% (17명)가 이민 3세대, 33% (11명)가 이민 2세대이다. 이주하기 전 한국 내 거주지로는 경상도가 응답자의 62%인 19명, 충청도 4명, 북한지역 4명, 경기도 1명, 전라도 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주 지역의 분포는 이 공동체가 경상도 지역의 이주민들에 의하여 건설된 후, 기타 지역에서 이주한 조선족들이 유입되었음을 알려준다. 성고자진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는 응답자의 97%인 32명이 경상도 방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1명이 서울말과 유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이주한 인원에 의해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문화와 언어의 정체성이 확립된 후, 기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원들이 기 확립된 공동체의 언어, 문화 등에 동화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공동체의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며 조선족으로

의 설립과 법제화를 통한 조선어문의 보급 노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임운(1990)에 의하면 1988년 현재, 조선족 소학교 420여개, 초중, 고중, 완전중학 120여개, 사범학교 6개, 연변대학 등 대학교 4개의 민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변대학 출판사 등 6개 출판사, 연변일보 등 10종의 신문, 연변인민방송국 등 3개의 방송국과 연변 텔레비전방송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선어문연구는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어 조선의 표준화 규범화에 공헌하고 있다. 조선어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1977년에 동북 3성 조선어문 사업협회 소조를 설립하여 중국 내의 조선어문사업의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연변자치주에서는 1988년에 <연변조선족 자치주 어문사업조례>를 공포하여 조선어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의 긍지도 매우 높아서 주위의 한족, 만주족, 회족 등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을 지키며 설문 응답자의 60% 정도는 아직도 제사나 차례를 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적 예절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식들이 한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한다. 그렇다고 하여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상당한 정도로 우호적이다.⁶⁾

성고자진 조선족들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을 잘 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던 여러 연구자들이 밝힌 것과 같이⁷⁾ 성고자진의 조선족들도 “조국은 중국, 고국은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즉, 자신들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며 동시에 조상들이 이주해 왔던 한국은 심정적 고향인 고국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연변교육출판사에서 간행하는 중국 조선족 소학교용 조선어 교재인 “조선어문” 제 3권 (2학년 1학기 용) 제 1과 “2학년생이 되었습니다”에는 오성홍기에 경례하는 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들은 운동장에 모여 국기계양식을 하였습니다. 학생기에서 국가가 울렸습니다. 계양대로 오성붉은기가 서서히 올랐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를 우러러 소선대경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족 소학교 때부터 강조되는 것으로 이들이 성인이 된

6) 예를 들어, 연구자가 면담한 문금철(18세)에 따르면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조선족 중학교와 한족 중학교 간에 패싸움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패싸움이 다른 사태로 변지는 일은 없다고 한다. 조선족이나 한족의 어른들은 이러한 패싸움을 어린이들의 장난 정도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7) 본 논문에서는 최우길(1999)의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소고”, 김광역(1982)의 “중국대륙의 한인 사회”, 전해중, 이승욱, 김한규(1992)의 “연변의 한족에 대한 기초연구”, 김석배(1999)의 “중국 조선족 사회와 문화의 형성과정” 등을 참조하였다.

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젊은이들이 겪는 두 개의 조국 간의 갈등인 “정체성의 위기”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소학교, 중학교, 고등중학교 기간 중 중국사를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치며 한국사는 세계사의 일부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조선어 시간에도 “중국은 조국” “한국은 고국”이라는 명제가 반복되어 다루어진다. 조선어 교재는 조국으로서 중국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산 혁명과 관계된 영웅담이나 중국의 지리적 환경 등을 소재로 다룬다.

이곳 조선족 공동체 성원들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운용능력(language proficiency)은 두 언어에서 공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벗어나면 중국어를 사용하여야만 하는 언어 환경 하에서 많게는 4대 적게는 2대에 걸쳐 살아오면서 고도의 중국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획득하였음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오히려 한국어로의 의사소통능력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설문과 직접 관찰에서 얻은 것은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 성원들의 한국어 운용능력이 매우 높으며, 조선족들과의 일상생활을 위한 제1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설문 응답자의 90%인 27명이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10%인 3명만이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의 응답자만이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편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 공동체에서 한국어는 제1언어의 위치를 여전히 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2>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운용능력을 나타낸다.

| 구분 | 빈도 | 비율 |
|-----------------|----|-------|
|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편하다 | 21 | 67.7% |
|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편하다 | 7 | 22.6% |
|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편하다 | 3 | 9.7% |
| 계 | 31 | 100% |

<표 2> 한국어와 중국어 운용능력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의 한국어 사용 상황은 윤인진(1997)이 보고한 독

립국가연합(구소련), 미국, 일본의 한인 동포의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언어 | 독립국가연합 | 미국 | 일본 |
|------|--------|-------|-------|
| 한국어 | 9.7% | 3.5% | 5.3% |
| 현지어 | 90% | 93.4% | 89.1% |
| 기타언어 | 0.2% | 1.5% | 0.2% |

<표 3>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 성원들의 한국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능별 운용능력은 <표 4>에서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기능 공히 90% 내외의 인원이 아무런 불편이 없거나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 구분 | 듣기 | | 말하기 | | 읽기 | | 쓰기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불편 없다 | 23 | 74.2% | 19 | 63.3% | 22 | 66.7% | 25 | 75.8% |
| 약간 불편 | 5 | 16.1% | 9 | 30.0% | 4 | 12.1% | 4 | 12.1% |
| 많이 불편 | 1 | 3.2% | 0 | 0% | 4 | 12.1% | 1 | 3.0% |
| 거의 못한다 | 2 | 6.5% | 2 | 6.7% | 3 | 9.1% | 3 | 9.1% |
| 계 | 31 | 100% | 30 | 100% | 33 | 100% | 33 | 100% |

<표 4> 기능별 한국어 운용능력

구성원들이 이처럼 높은 수준의 한국어로의 의사소통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한 이유로위에서 언급한 조선족 학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들 수 있겠다. 응답자의 94%인 30명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받지 않은 2명 중 1명은 집 안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함으로써 한국어 운용능력을 획득하였으며, 나머지 1명

은 중국어로 의사소통한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의 TV 및 라디오 방송의 청취와 한국어 신문의 구독도 한국어의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⁸⁾

| 내용 | 방송청취 | | 신문구독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거의 매일 듣는다/읽는다 | 19 | 59.4% | 1 | 3.4% |
| 자주 듣는다/읽는다 | 1 | 3.1% | 5 | 17.2% |
| 가끔씩 듣는다/읽는다 | 9 | 28.1% | 7 | 24.1% |
| 거의 듣지/읽지 않는다 | 3 | 9.4% | 16 | 55.2% |
| 계 | 32 | 100% | 29 | 100% |

<표 5> 한국 방송 청취 및 신문 구독 현황

4. 성고자진 한국어의 특징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의 한국어는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언어적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경상도 방언, 북한의 문화어, 연변의 한국어와도 다른 별개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편의상 성고자진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국어를 “성고자진 한국어”로 부르기로 한다. 이하에서 성고자진 한국어의 성격을 음성/음운, 어휘, 통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개괄해 보고자 한다.

4.1. 음성/음운적 성격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 성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경상도 방언임을 확신하고 있다. 응답자 33명 중 32명이 자신은 경상도 방언을 사용한

8) 중국어 방송과 한국어 방송 중 주로 시청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63%가 한국어 방송이라고 응답한 반면 30%가 한국 신문을 주로 구독한다고 응답하였다.

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태도는 면담에 응한 황영만씨의 다음의 언급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 우리는 일한합병 후에 여기에 들어왔고 그래가지고서는 동북지구를 전전 궁궁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선생님은 영어를 하신테니까, 그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습관된 언어가 이게 개변이 잘 안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 고향 경북을 가보니까 경북이나 강원도가 말이 좀 상한게 많소 많은데 누가 내가 말하면 경상도 사람이란걸 벌써 알지.

이 공동체 주민들의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사용하는 억양에서 비롯된 듯하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연변지역은 함경도 방언, 심양은 평안도 방언, 할빈은 경상도 방언, 연수는 함경도 방언 등’의 일종의 고정 관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이들 각 지역의 한국어는 분명히 구별 가능한 억양 등 음운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성고자진의 한국어는 현재 경상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억양 양상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공동체의 억양을 범주화하면 경상도 방언에 포함하여야 하겠지만 젊은 층에 있어서 고저의 차, 고저 반복의 빈도 등 세부적 측면의 차이가 감지된다. 이는 북한의 문화어에 영향을 강하게 받은 중국 조선족 표준어와 중국어의 성조 등에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경상도 방언의 활용 어미 체계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현실과도 무관하지는 않은 듯하다.

두음 법칙이 지켜지지 않아 어두의 ‘ㄹ, ㄴ’ 발음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음도 한 특징이다. 그러나 ‘ㄹ’과 ‘ㄴ’은 여전히 음소적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어두의 ‘ㄹ’은 ‘ㄴ’로 발음된다.⁹⁾ ‘녀자, 년세, 뇨소’ 등의 발음도 젊은 층에서 쉽게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연변대학의 최윤갑(1990)이 밝힌 바대로 북한의 어법에 따라 중국의 조선어의 표준어법을 정비함에 따라 세력을 얻게 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윤갑은 연령에 따라 ‘로동 ↔ 노동’ 등과 같은

9) 중국어에 있어서 ‘ㄹ’과 ‘ㄴ’은 음소적 차이를 보인다.

교체형이 쓰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젊고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로동’ 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순경음 ‘빙’이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도 한 특징이다. 순경음의 사용은 전 연령층에서 사용되고 있다. 52세의 유동근과 26세의 최운봉은 공히 ‘musəβə, musəβinik’a’ 등의 발음을 사용하였다.

장모음과 단모음의 음소적 차이는 젊은 층에서 많이 흐려졌거나 소실되었다. 26세의 최운봉과 18세의 문금철은 다음에 제시한 어휘쌍들의 의미차를 구별해 내지 못하였으며, 이들의 의미는 이 어휘들의 사용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응답하였다.

- 일 (一) : 일 (事)
- 되 (升) : 되 (硬)
- 벌 (罰) : 벌 (蜂)
- 밤 (夜) : 밤 (栗)
- 눈 (眼) : 눈 (雪)

이들은 또한 성조에 의한 의미차도 변별해 내지 못하였다. 1980년 정신문화원이 발간한 「한국방언조사질문지」에서 택하고 있는 다음 어휘들의 의미차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 배 (梨) : 배 (腹) : 배 (倍)
- 되(化) : 되(升) : 되(硬)
- 금 (金) : 금 (線)
- 말 (馬) : 말 (斗) : 말 (言)
- 섬 (石) : 섬 (島)

단모음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과 비슷하여 전설 원순 단모음 ‘기’와 ‘니’가 이중모음 ‘wi’와 ‘we’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중 모음 ‘니’가 대부분 ‘i’로 대체되고 있다. 동화규칙에 있어서는 경상도방언 (특히

밀양 일대의 방언)과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꽃이) 피+아도 → 피: 도,’ ‘(칼로 손을) 바+아도 → 바: 도’와 같이 /a/가 선행하는 /i/ 음에 동화되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성고자진의 한국어에서는 표준 한국어와 같이 ‘피어도’ ‘베어도’ 등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고향 > 고행,’ ‘편지 > 편지,’ ‘학교 > 핵괴,’ ‘고추 > 고치,’ 등의 음라우트 현상도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몇 가지 이중자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50대와 20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중자음 ‘ㄹㅁ, ㄹㄱ, ㄹㅂ, ㄹㅌ, ㄹㅅ’이 모음 및 자음과 연결되었을 때, 50대의 유동근은 ‘맑다’와 ‘밭다’의 경우 ‘ㄹ’을 생략하여, 20대의 최운봉은 ‘ㄱ’과 ‘ㅂ’을 생략하여 다음 표와 같이 발음하였다.

유동근의 발음

| | -어/아 | -지 | -더라 | -(는)다 |
|----|------|----|-----|-------|
| 젊- | 절머 | 점찌 | 점떠라 | 점따 |
| 맑- | 말거 | 막찌 | 막떠라 | 막따 |
| 밭- | 발버 | 밥찌 | 밥떠라 | 밥따 |
| 할- | 할터 | 할찌 | 할떠라 | 할따 |
| 업- | 업써 | 업찌 | 업떠라 | 업따 |

최운봉의 발음

| | -어/아 | -지 | -더라 | -(는)다 |
|----|------|----|-----|-------|
| 젊- | 절머 | 점찌 | 점떠라 | 점따 |
| 맑- | 말거 | 말찌 | 말떠라 | 말따 |
| 밭- | 발버 | 발찌 | 발떠라 | 발따 |
| 할- | 할타 | 할찌 | 할떠라 | 할따 |
| 업- | 업써 | 업찌 | 업떠라 | 업따 |

‘값, 샅’은 ‘갑시, 갑또, 가팍고, 사기, 삭또, 사카고’ 등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황용수 등이 보고한 밀양 방언의 ‘까치 > 칸치’에서의 ‘ㄴ’ 첨가, ‘마지막 > 망지막’에서의 ‘ㅇ’ 첨가 등의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술, 팔’ 등에서도 같이

받침으로 쓰이는 ‘ㅌ’은 ‘소치, 소출, 소테’ 등으로 발음되며, ‘숯’ 등에서와 같이 ‘ㅈ’은 ‘수치, 수체, 수출~수탈’ 등으로 발음된다.

지폐이, 방메이, 방아꼬 등의 예에서 모음의 비음화 현상이 발견된다. 특히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 있어서 폐쇄음절 (closed syllable)이 다른 음절에 연결 될 경우 받침 자음의 약화 또는 생략이 자주 관찰 된다. 예를 들어 ‘밥도 먹고’는 pa · t'o · mǎ · k'o와 같이 발음된다. 이는 유음 이외의 종성을 허락하지 않는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2. 어휘적 성격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의 50대 이상 성원들의 한국어 어휘의 유지율이 매우 높은 반면 20대 또는 그 이하 젊은 세대의 한국어 어휘의 상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한 263개 어휘 중 50 이상 세대 (황영만, 유동근, 최성유 등)에서 상실된 어휘와 20대 이하 세대 (최운봉, 문금철) 등에서 상실된 어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50대 이상의 상실 어휘

기스락물, 염낭, 미투리, 씨아, 오디, 벳, 개상, 확, (애벌 빨래, 두벌 빨래)

20대 이하의 상실 어휘

기스락물, 깍두기, 가마, 이남박, 조리, 대님 (매다), 짚신, 미투리 (삼다), 나막신, 감주, 옛기름, 수제비, 백설기, 밀기울, 꾸미, 새알심, 애벌, 두벌, 도사리, 팽과리, 것두리, 키, 어레미, 보리, 조, 감부기, 호미씻이, 쇠스랑, 밭고랑, 밭이랑, 벼훅이, 개상, 새피기, 도리깨, 확, 절구공이, 방석, 떡등구미, 홉웃, 겹웃, 골무, 호다, 베, 씨아, 뽕나무, 오디, 벳, 번지, 보습, 염낭, 호박고지, 등

이 공동체의 농촌 공동체로서의 성격과 폐쇄적이고 비 유동적 환경이 이민 2~3세대인 중 장년 층 이상의 성원들이 한국어 어휘를 비교적 온전히 유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반면,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거나 농업의 기계화 등으로 전통적 농경 및 생활 도구나 작물에 관한 어휘를 많이 상실하고 있다.

50대 이상 세대의 어휘의 특징으로 첫째, 대부분의 발음과 형태의 두 측면에 있어 경상도 방언의 어휘라기보다는 소학교 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중국 표준 한국어의 어휘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성고자진의 한국어가 교육과 언론을 통한 중국의 표준 한국어 (북한의 문화어에 바탕을 둔)의 동화 압력을 강력히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무꾸, 절구찌이, 열게미, 동사아덕, 뽕(>뽕), 꺾 (>두름), 희아(홍아> 형아), 째지 등의 경상도 방언의 어휘들은 표준어의 동화 압력을 이기고 살아남은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의 일반화 현상도 관찰된다. 절인 채소를 째지로 일반화 하여, 오이소박이를 오이째지라 부르며, 썰어서 말린 것을 오가리로 일반화하여 무말랭이를 무꾸오가리, 호박고지를 호박오가리, 가지오가리 등으로 부른다. 어휘의 의미가 특수화되기도 한다. ‘잔치’라는 어휘는 보통 ‘결혼식’ 또는 ‘결혼잔치’의 의미로 쓰여 ‘우리 삼촌은 스무살에 잔치했지요’ 등으로 쓰인다. ‘잔치’의 의미가 이처럼 축소되면서 ‘환갑잔치’ 등은 그냥 ‘환갑’이라고 한다. 의미분화에 의한 이중어도 관찰된다. 소학교 5학년인 피면접자는 ‘부엌’을 ‘부뚜막’의 의미로 사용하고 이 단어를 ‘정지 (또는 정제)’와 구별한다. 중국어 어휘의 유입으로 인한 어휘 의미의 분화도 이중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제기차기에 있어 형겅 등을 이용하여 만든 오자미같이 생긴 것은 ‘제기’라 부르고 동전과 닭털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은 /thi hɔr/라 부른다.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에 있어서도 다른 조선족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어휘의 차용이 빈번하게 관찰된다. 연변언어연구소의 김덕모(1990)는 한국어에 차용되어 사용되는 중국어 어휘를 직접적 차용과 간접적 차용으로 대별한다. 직접적 차용이란 중국어 어휘를 중국 발음 그대로 사용하는 음차(音借)¹⁰⁾를 뜻한다. 간접적 차용은 다시 중국어 어휘를 한국에서 한자어를 읽는

10) 김덕모(1990)는 문어에서보다는 구어에서 음차된 차용어어들이 광범하게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직접 한국어 어휘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은 거의 전

방법으로 발음하는 음독(音讀)¹¹⁾과 중국어 어휘의 뜻을 한국어로 옮겨 놓은 의역(意譯)¹²⁾으로 구분하였다. ‘쌍발(上班),’ ‘샤발(下班)’ 등은 음차된 어휘들이며 ‘교학←수업,’ ‘과당←교실,’ ‘주원←입원,’ ‘출원←퇴원’ 등은 음독의 경우이며, ‘종이범←紙老虎,’ ‘대물림보배←傳家宝) 등은 의역된 차용어이다.

성고자진의 공동체에서도 음차, 음독, 의역의 방법으로 중국어 어휘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어 어휘이지만 음독된 어휘들은 한국어 어휘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자의 정보제공자들은 한국어의 대부분의 어휘들이 원래 중국어에서 음독된 것이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 새롭게 차용된 중국어의 음독 어휘들과 기존의 한국어 어휘들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 할 뿐 아니라, 구태여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의역의 경우는 중국어를 음독하여 사용할 경우 너무 생경하다는 느낌이 들 때 이왕의 통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최운봉은 ‘잠고대’ 대신에 ‘꿈말’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국어의 夢話를 창의적으로 의역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그는 ‘가로등’이라는 표현 대신에 ‘가룻불’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이것도 중국어 어휘인 街燈을 창의적으로 의역한 것이다.¹³⁾

부가 음차된 중국어 어휘로 표현한다. 특히, 특정직업(예, 방직 공장)의 전문 용어 중에 음차된 어휘가 많음을 보고하고 있다.

- 11)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용의 경우이며 김덕모(1990)에 따르면 동북 3성 조선어문 제 2, 3, 4차 실무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말 명사, 술어통일안>에서 받아들인 569개 어휘 중 550여개(97%)가 음독된 차용어이다. 연변 등 현지의 대부분의 언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김덕모(1990)도 매우 규범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서 채택된 550여개 어휘 중 500여개의 어휘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12) 의역의 경우는 어휘 뿐 아니라 중국어의 은유적 표현인 관용어구를 차용할 때도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다. 서영섭(1990)은 ‘속셈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인 중국어 표현 ‘心中有數’를 ‘심중에 숫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거나, ‘그의 말에 무슨 영문이 있다’라는 의미의 중국어 표현 ‘他的話里有文章’을 ‘그의 말 속에 문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 13) 연구자가 성고자진에서 ‘가룻불’이라는 표현을 쓰느냐고 물었을 때, 김운봉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그냥 써 본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연구자: 중국말로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쪽 하였으니까 잘 할 테고. 그런데 (중국말로) 읽고 쓰는 것은 어때?

최: 문제없지요.

연구자: 문제없어? 중국말로 읽고 쓰는 데?

최: 맨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요. 만나는 사람마다 중국말을 쓰니까..... 근데 습관이 안 되어 가지고요..... 잠에서 **꿈말하는거** 같이 조선 말 막나간다고요. 아침에 피곤하고 그럴 때는 “지금 몇 시야?” 한 다고요. 그 때는 습관이 안 되어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편해지더라고요.

위에서 언급한 어휘 조사에서 음차된 중국어는 **툰자>떡둥구미**, **티처르>제기**, **파리>썰매**, **윤티>인두**, **주차이>부추**, **따오치에미엔>수제비** 등 극소수에 불과 했다. 어휘조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귀즈>과자**, **따즈보>대자보**, **쓰프>사부** 등이 쓰이고는 있으나 성고자진 조선족들은 중국어를 원음 그대로 음차해 쓰는 것에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는다.¹⁴⁾

4.3. 통사적 성격

성고자진 한국어의 통사적 성격은 무엇보다도 그 어미체계의 표준어법으로의 동화에 있다 하겠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언어에서도 경상도 방언 특유의 어미 체계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손명규(1987)의 「밀양 지역어의 활용체계 연구」에 나타나는 밀양 방언 특유의 다음과 같은 종결 및 연결 어미가 성고자진의 한국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니느 늘 바야 **말뿌이드라**.

군츠으스 살래미이 **일뜨이라 카대**. (군청에서 산내면이 일등이라고 하데.)

14) 음차, 음독, 의역의 방법으로 차용된 어휘들과 기존의 어휘들 간의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은 음차된 어휘들과 기존의 어휘들이 의미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용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용된 어휘들이 기존의 어휘를 대체하거나 영어의 skirt와 shirt 같은 의미적 분화를 이루게 되리라 판단 된다.

이그 내가 **한다이**.
 든지라(=던지라), 내가 **바드꾸마**.
 즈래 산는 그로 보이 신래이 조킨 **조응갑다**.
 이기 **돌빼이구매**.
 농사 지이 노응 그 보마 아무 곳도 **아이그등**.
 즈 사람 사내 놀로 **가능가배**.
 이기 우째서 니 **도이고?**
 지배스 므 **하능공?**
 즈 사라믄 **일하미** 노래한다.
 니느 **일하미시**로 므산 치다 보나?
 시이 **작다이** 바리 부리키타. (=신이 작더니 발이 부르텠다.)
 살아갈 이를 **생각하이** 가시미 답답하다.
 나락 비로 **가구로** 난 줌 가라라.

성고자진 한국어의 또 다른 통사적 특징으로 젊은 세대의 언어에서 경어법이 매우 단순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는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보수성이 강한 공동체로 50대 이상의 세대에 있어서는 박영순 등이 정리한 최존칭(‘하십시오’ 체), 존칭(‘하세요’ 체), 준존칭(‘하오’ 체), 비존칭(‘하계’ 체), 준평칭(‘해’ 체), 평칭(‘해라’ 체)의 6등분 존대법 체계와 거의 동등한 존대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쉽게 관찰된다. 특히, 젊은 층의 용법 중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최존칭(‘하십시오’ 체)이 활발히 쓰이고 있다.

연구자들이 면담한 황영만(68세), 유동근(52세)으로부터 다음의 표현들을 채록하였다.

- (1)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황영만)
- (2) 그게 오십 한 오년부터 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때부터 조선 전쟁이 나서 언어에 대해 정신을 쓸 겨를이 **없었지**. (황영만)
- (3) 예, 사십년 무렵에... 그 때는 아이가... 우리 형님이 있었던 **모양이래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애들이 가기 싫다는거 우리 할아버지가 거 가방만 들고 너이서 인제 북만으로 온 **셈이죠**. (유동근)

(4) 에 남한... 한국을 가고 싶어도... 보통 인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보통 저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그러니까 가들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처도 그렇고... 한국인데 불법으로 있으니까 이거 비자가 안 내려 **웁니다**. (유동근)

조선어 교과서인 조선어문에서도 위의 경어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규범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학년 2학기 교과서인 조선어문 제 4권 (p69)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어법을 기술하면서 최존칭의 사용을 강조한다.

우리 말에서 언어체절에 맞게 말하자면

- 옷사람이나 존경해야 할 분과 말할 때에는 말차림에서 <-습니다(-브니다), -습니까?(-브니까?), -세요> 등 맺음말을 씁니다.
- 특별히 문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존경을 나타낼 때에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토 <-시>를 씁니다.
- 존경을 나타낼 때에는 높이는 뜻을 더 담은 말을 골라 씁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있소? →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계십니까(계세요)?
 응, 있어. → 응, 계신다.
 뭘 하오? → 뭘 하십니까(하시나요)?
 할아버진 잔다. →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

학교 수업의 매우 강한 규범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성고자신의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경어법 체계는 상당한 정도로 단순화 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위의 경어법 6등분 체계 중 존칭의 “하세요” 체와 평칭의 ‘해라’ 체 만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¹⁵⁾ 즉, 이 공동체에 있어서 경어법 체계는 이들의 용어대로 ‘높임말’과 ‘보통말’로 이분화되어 있다. 높임말은 문장 종결어미 ‘-요’를 문장의 마지막에 붙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보조 어간 ‘-

15) 연결시 출신으로 현재 모 대학 대학원에 수학 중인 한 학생은 연구자와의 개인적 대화에서 이러한 관행이 연변의 젊은이 사이에서 일반적임을 알려 주었으며, 준경칭의 ‘하소’ 체도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가 면담한 최운봉(26세)과 문금철(18세)로부터 채록한 다음의 표현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김운봉: 오늘 그 분요 얘기 잘 하죠?

연구자: 응 잘 하시더라. 많이 아시더구만.

김운봉: 연설 다 잘 해요. 옛날에 우리 소학교 때 교장인테요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한 반시간은 해냈었는데요.

연구자: 이야기 잘 하시더라. 또 많이 아시더라, 정말.

김운봉: 아는 것도 많아요.

문금철: 작은 할아버지와 큰 할아버지는 세상 몇지만요; 우리 할아버지가 도박 잘 놀아요; 일하기 싫어하고요; 스무 살 때, 우리 할머니하고 잔치했지요; 등.

이 공동체에서 높임말은 아버지뻘 이상 되는 연령차를 보일 때 사용하며 10살 정도의 차이에도 보통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⁶⁾ 이러한 한국어 사용의 관행으로, 낯선 상대방에게 높임말을 써야 할지 애매할 경우에는 존대법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중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무례를 범치 않으려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어 높임말을 쓰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깎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생각하여 매우 어색해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친밀한 대화 상대자에게 이야기 할 때도 해당된다. 연구자와의 개인적 대화에서, 최운봉은 아버지와 한국어로 이야기 할 때의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통말을 사용하는데, 어색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는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의 중국어의 사용은 성고자진 조선족 공동체 뿐 아니라 흑룡강성 일대의 조선족들의 언어 사용에 거의

16) 18세의 문금철은 26세의 김운봉에게 스스럼없이 반말을 사용했으며, 김운봉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성고자진의 금부호텔에 연구자와 김운봉이 처음 투숙하였을 때 그곳의 종업원인 문금철은 김운봉과 중국어로 통성명한 후, 연구자와 셋이 있는 곳에서는 김운봉과 문금철은 반말투의 한국어로 대화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이야기 하였다.

보편화 되어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성고자진의 조선족 공동체의 언어 사용 양상을 이 공동체의 형성과정,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태도, 구성원들의 한국어와 중국어 운용능력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본 후, 의사소통 코드로서의 성고자진 한국어의 내적 특성을 경상도 방언, 중국의 표준 한국어, 중국어 등이 이 언어의 음운, 어휘,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중국 지역의 조선족이 한국어를 3~4세대에까지 상당히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중국 조선족 공동체가 폐쇄적 속성이 강한 농촌 사회였으며, 구성원들이 우리 문화와 언어에 대하여 강한 긍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이 조선족 사회에 밀려오고, 젊은이들의 도시로의 유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동화정책이 더욱 정교해져 가며, 지난 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국어가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현 시점에서 중국 동북지구에서 문화 및 언어의 섬으로 존재해 오며 각자의 독특한 언어를 발전시켜왔던 조선족 공동체의 언어 상황을 보다 광범하게 조사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광범한 조사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인용문헌

강보유, “조선어에 대한 한어의 의미적 침투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지 7, 이중언어학회, 1990.

김광억, “中國大陸의 韓人 社會,” 사회과학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회,

- 1982.
- 김덕모, “조선말 사용에 나타나고 있는 한어의 영향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지 7, 이중언어학회, 1990.
- 김석배, “中國 朝鮮族 社會와 文化의 形成過程,” 사회과학연구 23, 조선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9.
- 박경래,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한국사회언어학회, 2002.
- 박영순, “이중언어 이론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제,” 이중언어학회지 6, 이중언어학회, 1990.
- 서영섭, “중국에서의 조선어 사용 현황과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 이중언어학회지 7, 이중언어학회, 1990.
- 손명규, 「密陽 地域語의 活用體系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1987.
- 안운, “중국에서의 민족어문 정책과 조선어문 사업의 발전,” 이중언어학회지 7, 이중언어학회, 1990.
- 윤인진, “중앙아시아 韓人의 言語와 民族正體性,” 재외한인연구 6, 재외한인학회, 1996.
- 이윤하, 「現代 國語의 待遇法 研究」, 도서출판 역락, 서울, 2001.
- 전해중, 이승욱, 김한규, “延邊의 韓族에 대한 基礎研究,” 동아연구 12,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2.
- 최우길,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小考,” 재외한인연구 8, 재외한인학회, 1999.
- 최윤갑,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변화,” 이중언어학회지 7, 이중언어학회, 1990.
- 한상복, 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 1992.
- 한용수, “중국 조선족 교육의 방향,” 교육문제연구 14,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1999.
- 허승철, “구소련 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1959, 1970, 1979, 1989년 인구센서스 언어 자료 분석,” 재외한인연구 6, 재외한인학회, 1996.
- Denison, N., "Some observations on language variety and plurilingualism. In: Pride J. B, Holmes J. (eds.) *Sociolinguistics*, Penguin, Harmondsworth, 1972.
- McCormick W. C., "Code-switching and mixing." In: Asher, R. E. (editor-in-chief),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Pergamon Press, Seoul, 1994.
- Scotton C. M., "Code-switching as a 'safe-choice' in choosing a lingua franca." In: McCormick

W. C, Wurm S.(eds.) *Language and Society: Anthropological Issues*, Mouton, The Hague, 1979.

[Abstract]

A Study of Language Use among Korean Residents in China

Jang-Song Lee
(Korea Military Academ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used as a major communication means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Chenguoz District of Harbin, Heirungjiang Province, China, in terms of its phonology, morphology and syntax. The study focuses on how a variety of languages and dialects including Chinese, the Standard Chinese Korean adopted as a means of teaching in Korean schools, and Kyongsang Dialect of Korean have influenced the language of the community. It also deals as background information with the history of the community, the attitude of the community members toward Korean and Chinese, and their proficiencies of Korean and Chinese, to obtain the general picture of the bilingualism of this community.

This specific region was studied since this region and most of the Korean communities in the Heirungjiang province were formed by descendents of the immigrants from the southern province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allows the comparison between the language used today and the language their ancestors used before moving to this area.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innovation brought about by the opening of the Chinese society, the fast outward flow of youths to urban areas, and greater

assimilation threats from the embedding Chinese culture, we are not too sure if the Korean language will continue to be used in the future. Given these circumstances, we consider this research most opportune in that it provides a look into the Korean community that developed its distinctive culture and language within an isolated cultural environment.

접 수 일 : 2004년 4월 16일

심사기간 : 2004년 5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5일(편집위원회)